

#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8주차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문학 마무리

추가독해

추가스킬

추가 과제

## 1. 추가 독해

### '고전 서정

#### 고전 서정 문학에서의 BONE 독해를 심화& 맞춤

**BONE 독해:** 작품의 서정을 파악 즉 화자, 대상과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을 파악

**구체적 기준점:** 화자, 대상과 상황 그리고 인식에 동그라미, 인식마다 끊어주기& 고전의 한정성 파악

여기서 우선 문제가 되는 건 대상과 상황이 무엇이나는 것. '꽃이 아프게 피었다' 같은 외적인 대상과 상황은 비교적 쉽게 찾지만 '내가 아프게 달린다' 같은 화자의 행동과 내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림

또한 대상과 상황이 너무 많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심화& 맞춤 기준점1:** 대상과 상황은 인식을 이끌 때 동그라미. '나는 밥을 먹는다' OR '기차가 달린다'처럼 인식은 이끌어 내지 못하고 대상과 상황만 나열될 때는 넘어가기

핵심은 결국 인식! 그럼 인식을 이끌어 내는 구조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꽃이 피었다. 가슴 시리게' 라는 표현처럼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도 있지만 '울어가는 저 시내' 같은 감정이입이나 '그대는 어찌 아니 오는가'같은 의문문 같은 형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식을 드러내는 형태도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서정 문학에서의 시간을 줄여간다.

**심화& 맞춤 기준점2:** 정서의 직접제시, 감정이입,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주관적 인식이 드러남& 동그라미 특히 의문문의 경우에는 'A는 어땠가?'의 구조로 대상과 인식이 자주 등장하기에 집중

또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화자의 상황과 대비됨으로써 인식을 이끌 수 있음. 알아만 두기! (EX) 꽃이 다 피었는데(화자의 상황과 대비, 슬픈 정서 심화) 님은 왜 아니 오시는가?

**고전의 한정성:**고전은 비슷한 인식이 계속 해서 제시& 인식의 변화만 잘 끊어주기 &고전의 인식은 자연에 대한 만족, 임금에 대한 걱정과 감사, 해어진 님에 대한 그리움+ 학문/충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

#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8주차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문학 마무리

## '고전 서사

### 고전 서사 문학에서의 BONE 독해를 심화& 맞춤

**BONE 독해:** 작품의 서사를 파악 즉 사건과 사건들간의 인과관계를 파악

**구체적 기준점:** 인물, 사건 배경에 동그라미& 인물 사건 배경이 바뀔 때마다 끊어주기& 한정적 서사 구조 알기

여기서 우선 문제가 되는 건 사건이 무엇이나는 것. '부모님과 나와의 말싸움이나 친구와 나와의 육탄전 같은 사건'은 쉽게 파악하지만 '내가 집으로 가는 것이나 내가 달리는 것'같은 일상적인 사건들 역시 사건으로 파악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서사란 사건의 연속인 만큼 사건이 너무 많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심화& 맞춤 기준점1:** 사건은 긴장감의 변화를 이끌 때만 동그라미. 긴장감의 변화 즉 갈등을 유도하거나 해소시킬 때만 체크

서사 문학은 기본적으로 자아와 세계의 갈등 구조에서 시작한다. 이 갈등의 과정은 사건들을 통해서 연속된다. 사건의 연속인 서사에서 사건은 끊임없이 제시되는 데 그 중 주목해야 하는 사건은 이 갈등 구조를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다.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해소하는 즉 긴장감의 변화를 이끄는 사건들에만 동그라미 치겠다고 생각하고 읽어 집중력을 높인다.

**심화& 맞춤 기준점 2:** 사건들이 역순행적 구성이나 액자식 구성 등으로 인해 시간의 순서대로 연속되지 않을 때는 인과관계를 고려

사건은 시간의 순서대로만 연속되지 않는다. 실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일직선으로 나아가지만 사건은 역순행이나 액자식 구성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연속된다. 이 같은 특징은 고대 서사 보다는 현대 서사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현대서사에서 사건은 단지 스토리 대로 과거에서 현재가 아니라 플롯을 구성하며 입체적으로 연속되는 것이다. 이 같은 연속을 통해 사건들간 인과관계는 잘 드러나고 의미들도 더 잘 보이게 된다.

실전에서는 현대서사에서 이 같은 연속이 느껴지면 끊은 길에 인과관계까지 추가로 정리하자

**심화& 맞춤 기준점 3:** 고전에서는 사건뿐 아니라 인물도 고려해야 함. 인물의 호나 직급에도 집중하며 부자 관계가 제시 되었을 경우 X&Y로 구분해 주어야 함.(인물 관계도!)

고전이 어려운 이유는 인물에 있다. 사건 구조는 단순하지만 호나 직급을 활용해 인물은 계속 다르게 불리며 성이 같은 가족들과 함께 나오기에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나 직급에도 동그라미 치고 부자관계는 X&Y로 구분하자 OR 구조도!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

#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8주차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문학 마무리

## 2.추가 문제풀이 스킬

### '문제풀이

#### 문제 풀이 스킬을 심화& 맞춤

목표: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고민을 최소화하고 문제 풀이의 시간을 줄여간다.

#### '문제 풀이 기본 원리

##### 선지는 의미를 들을 수 없다:

문의 다양한 해석 중 그 의미를 생명력으로 한정시킬 수는 없다. 특히 시대적 배경과 작가와 해석과 관련된 해석은 불가하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기와 함께 제시 되어야 한다.

##### 선지는 내용자체의 유무를 묻는다:

의미를 묻지 못하는 문학 문제는 논리적 고민을 거의 요구 하지 않는 내용의 유무를 묻는다. 만약 '화자가 대상에 대한 비판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 하면 대상에 대한 비판이 있는지 감각적 제시가 있는 지만 확인하면 된다.

##### 문학 개념어는 미리 암기하자:

내용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학 개념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9평에서 등장한 '시각적 묘사'라는 표현처럼 익숙하지만 정확한 기준점을 모르는 표현들을 정리해야 한다.

#### '문제 풀이 스킬 심화 맞춤

##### 서술어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말자:

EX)상상모의고사 4회 고전 소설

내용: 배가 풍랑에 부셔서 어떤 섬으로 들어갔다.

선지: 인물은 고립되어 있다.

고립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주로 외부적 상황 때문에 강제적으로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다. 글에서는 자식들과 함께 배를 수리하기 위해 섬으로 들어간 것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헛갈려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선지는 참이다. 고립의 정의를 쳐보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강제성'이나 '혼자 있는 상태' 같은 기준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단어의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간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반대의 내용이 아니라면 헛갈리는 서술어는 세모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

#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8주차

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문학 마무리

## 3. 추가 과제

EBS는 완벽하게 정리

고전 시가- 프린트 풀고 1차오답까지 진행

현대 서사- 프린트 풀고 1차오답까지 진행

고전 서사- 프린트 풀고 1차오답까지 진행

한정성에 기반 따로 정리한 내용 암기